

열왕기상 8. ‘솔로몬’의 성전 봉헌 2 (왕상 8:22-66)

들어가기

열왕기상 8 장은 ‘솔로몬’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8 장의 내용은 문맥상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첫째는 성전 봉헌식이 거행 되기 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 일,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‘솔로몬’의 연설, 세 번째는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‘솔로몬’의 기도문, 넷째는 그 후 백성들을 향한 ‘솔로몬’의 축복과 권면,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며 예루살렘 성전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습니다.

1. 성전 봉헌식에 앞선 ‘솔로몬’의 기도. (22-53 절)

❖ ‘솔로몬’의 기도를 8 가지 주제로 정리 해서 묵상해 봄.

- 그 전에 한 가지 주목! -> ‘솔로몬’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? (22-24 절)
- ①. ‘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’ 곧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결코 없음!
- ②. ‘하나님은 온 맘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!’

1) 내 아버지 ‘다윗’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! (25-26 절)

- ‘다윗’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?
 - ‘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,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!’
 - 곧 ‘다윗’처럼 순종하면 ‘다윗’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!

2)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니 주의 종과 모든 백성이 이 곳에서, 또 이 곳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! (27-30 절)

- ①. 땅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음! But!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음!
- ②. 그러므로 이 성전을 밤낮으로 살펴 보시며, 주의 종과 모든 백성들이 이곳에서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‘들으시고 들어주시길’ 기도!

3)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,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,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! (31-40 절)

- ①.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, 그가 와서 성전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,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사 악은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그의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시길 기도! (31-32 절)
- ②.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한 후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, 그 죄를 용서하시고,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(회복되게) 하시길 기도! (33-34 절)

③.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(ex: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침, 땅에 기근과 전염병, 곡식이 병들고, 메뚜기나 황충의 피해, 그 외 각각의 질병과 재앙들)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,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과 징계를 멈추어 주시길 기도! (35-40 절)

4)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, 저들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! (41-43 절)

-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!
 - ‘그들이 **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퍼신 팔의 소문을 듣고**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,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**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** 땅의 만민이 **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** 하시오며...’

5)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기 전,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, 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! (44-45 절)

6)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적국에 사로잡혀 갈지라도, 그 땅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면,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! (46-51 절)

7)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삼아 주신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! (52-63 절)

❖ 참고: ‘솔로몬’의 기도 가운데 반복되는 주목할 두 가지 중요한 표현들!

①. 성전은 ‘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or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 곳’-> 총 5 번 반복!
(16, 20, 29, 43, 44 절)

- 성전을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 곳이라 하심!
- 곧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,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!

②. 하나님은 ‘하늘에서 들으시고’ -> 8 번 반복! (30,32,34,36,39,43,45,49 절)

- ‘하늘’의 이미지를 생각 = ex: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음, 항상 땅을 내려다 봄, etc.
-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,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며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, 보호해 주실 것임을 깨닫게 함!

2.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‘솔로몬’의 축복과 권면 (54-61 절)

1) 왕으로써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 1 -> ‘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!’ (56 절)

- ①. 그는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신 분!
- ②. 조상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분!

2) 왕으로써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부탁/권면 (57-60 절)

- ①.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, 우리에게도 함께 해 주시길 소망!

- ②. 이를 위해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, 주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길 바람!
- ③. 자신이 드린 모든 기도를 모든 백성이 기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람!
- ④. 세상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알게 되길 바람!

3) 왕으로써의 백성들을 향한 명령 2. (61 절)

-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쳐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라! (61 절)

3. 화목제를 드리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함 (62-66 절)

1) ‘솔로몬’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.

- 희생 제물의 양: 소가 22,000 마리, 양이 120,000 마리
 - ‘솔로몬’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 줌!
 - 이는 곧 ‘솔로몬’의 통치 기간 동안 이런 헌신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하였음을 증명함!
- 성전 앞뜰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모든 제물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림!
- 참고
 -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 바치는 것
 - 소제는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것
 -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동물을 드리되, 기름만 불살라 바치고 고기는 제사장을 비롯한 감사제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나눠 주며 감사 잔치를 하게 함!

2) 성전 봉헌식은 총 14 일 동안 성대한 잔치로 거행되었습니다.

- 7 일(언약궤 이동 + 연설 + 성전 봉헌식 준비 + 기도 + 봉헌식) + 7 일 (장막절 절기 시작)
- 이스라엘의 대 명절인 장막절 절기(7 일)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‘솔로몬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기 시작하며,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대잔치를 시작하여 장막절 절기가 끝날 때까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축복하는 전국적인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함!

4.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스스로 결심한 것이 있다면?

5. 중보기도 나눔